

의약 · 화장품 수출 9억달러 육박

의약품수출입협회, 전년대비 5% 증가 ... 2004년 9억5050만달러 목표

2003년 국내 의약품 및 화장품 수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, 2003년 의약·화장품 수출액은 총 8억9446만8000달러로 2002년 8억5171만3000달러에 비해 5% 늘어났다.

원료 의약품이 4억4159만2000달러로 가장 많았고 완제의약품 2억9691만7000달러, 화장품 1억5064만7000달러, 한약재 531만2000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.

반면, 수입액은 28억836만달러로 2002년 28억3555만7000달러보다 1%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.

이에 따라 2003년 의약·화장품 무역적자는 19억1389만2000달러로 2002년 19억8384만4000달러보다 다소 줄었다.

의약품수출입협회는 “중동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완제의약품 수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, 2004년에는 6% 가량 늘어난 9억505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릴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2/16>